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Middle-Aged Men's Family and Work related variables and satisfaction

이은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시간강사

Eun-A Lee

Dept.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middle-aged men's family and work related variables and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was concluded ;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n's satisfaction across education level, economic variables, and occupation.

Second, family related variables, work related variables, and work-family conflict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atisfaction. In reference to family related variable, satisfaction was higher when marital satisfaction is good, parental stress, adult caring burden, and work-family conflict are lower. In reference to work related variables, satisfaction is higher when job stress is lower, job security is lower, and colleague relationship is good.

Third, family related variables, work related variables, and work-family conflict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utually one another. Specifically, parental stress is correlated with work related variables. A higher correction was reported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job stress.

Finally,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se variable influenced middle-aged men's satisfaction. Moreover, the degree of explanation for satisfaction increased more, when family and work related variables, and work-family conflict add in individual character variables.

Key Words : Middle-aged men, Family and Work related variables, Work-family conflict, Satisfaction

I. 서론

중년기는 전 인생에서 중간 시기에 해당되며, 사회에서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로 개인의 인생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발달단계이다. 우리나라에서 중년기에 대한 관심은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부터 비롯되었다. 현대 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원통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에서 중년기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도 전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년 인구(4

0~59세)가 전체의 28.5%를 차지하여 적어도 네 명중 한 명이 중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6). 이러한 인구 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중년 남성의 사망률이다. 2005년 전체 남녀 사망률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1.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중 40대는 여자의 2.77배, 50대는 2.84배로 중년 남성의 사망률이 중년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년 남성의 수명이 더 짧았다(통계청, 2006). 이러한 사망률은 중년기 남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중년기 남성들은 신체적으로 건강의 악화를 경험하지

* Corresponding author: Lee, Eun-A
Tel: 063) 270-3835
E-mail: silver-0304@hanmail.net

나,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역할에 대한 이중적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직장에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절망, 침체, 무기력, 방황 등과 같은 심리적 위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Evandrou, Glaser, & Henz, 2002; Samuels, 1997; 고기숙, 2003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의 중년기 남성들은 IMF 이후 경제위기와 함께 닥친 고용 및 직업 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해 초조감, 불안, 좌절감, 무력감 등의 심리적 위기를 더 크게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중년기의 남성은 사회의 중추적 구실을 요구받지만 동시에 빠른 속도로 다음 세대에게 밀려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인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이 증가하고 정체성 위기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배일경제, 2006).

특히, 중년기의 위기감과 같은 심리적 측면은 지난 10여 년간 경험적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중년기 남성들의 심리적 위기와 그에 따른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년 남성의 심리적 복지나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기숙, 2003; 박준희, 2004; 서정아, 1998; 이혁구, 1999; 한경혜, 송지은, 2001; 황인성, 1998). 이들을 종합해 보면, 중년기의 심리적 측면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직업생활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 남성의 적응이나 위기와 같은 심리적 측면은 개인, 가족, 직업 등의 환경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이들 간의 관계나 영향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이들 관련 변인들을 개별 요인으로 하여 각각의 관계나 그 영향만을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어 중년기의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개인의 발달이나 적응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체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의 가장 밀접한 환경체계인 가족 및 직장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의 개인특성 변인, 가족관련 변인, 직업-가족갈등, 직업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이들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요인이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년기 남성의 개인특성 변인, 가족관련 변인, 직업-가족갈등 및 직업관련 변인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어떠한 차이 또는 관계가 있는가?
2. 중년기 남성의 가족관련 변인, 직업-가족갈등 및 직업관련 변인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중년기의 특성

인간의 생애는 심리적·환경적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발달하는 연속적인 변화과정이다. 그러므로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중년기의 구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김남순, 1983; 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장재정, 1988; Ballard & Morris, 2003; Farrell & Rosenberg, 1981; Gould, 1978; Havighurst, 1972; Jung, 1933; Neugarten & Gutmann, 1958; Sheehy, 1995). 본 연구에서는 40세 초반을 중년의 전환기로 보는 Levinson의 견해와 연령을 기준으로 삼은 고기숙(2000)의 견해를 바탕으로 중년기를 40~59세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중년기에는 다른 발달단계와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즉,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 역동이 변화하고, 부부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직업 전환이나 직무 성격의 변화로 인해 가족과 일에 대한 개인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의 생애에 대한 회고와 그 의미를 성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년기 삶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적응이 요구된다.

Jung은 결정적 전환기(critical turning point)로 중년기를 언급하면서 이 시기에는 억압되었던 무의식 성향이 출현하게 되고 혼돈감과 초조감을 유발하며 이러한 무의식 성향을 의식적 인성에 통합·조화시킴으로써 위기감을 해결하고 성숙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중년의 전환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과 실제에 대한 고뇌, 중년기에 적절한 새로운 삶의 구조를 모색하는 등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는 가족관계나 직업 생활, 사회적 역할 등의 외적인 변화와 맞물려 중년기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년기와 관련된 가족적 요인으로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연구들에서는 가족요인이 중년기의 심리적 측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되어 왔으며(김명자, 1989, 1991; 김애순, 1993; 김현화, 1992; 박경숙, 1991; 박준희, 2004;

한미선, 1992), 특히 1990년대 들어서 가족관계와 중년 남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김윤민, 2003; 김연화, 1999; 김현지, 2000; 유주연, 1995; 최은경, 1993)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가족내 부부, 자녀, 노부모와의 관계를 가족내 유대감이나 가족 스트레스로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가 많아 이들 각 요인들이 중년 남성의 심리적 측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노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주로 여성 부양자의 부양부담이나 노부모와의 유대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중년 남성에게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다음으로 중년기에 관련된 직업적 요인으로는 직업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중년기는 직업생활에서도 절정기 또는 전환기이므로 스트레스나 심리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 중년기의 직업생활과 심리적 측면은 이 시기 뿐만 아니라 노년기 적응에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명자, 1998). 또한 직업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직업 요인이 중년기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박정아, 2004; 이명주, 2002; 이연수, 2000; 정은주, 2004). 직업에서의 안정성 역시 심리적 측면에 관련되는데, 정보화 사회에서의 경쟁,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적응력의 부재, 은퇴와 실직 등과 같은 중년 남성이 직면하는 문제들로 인해 직업에서 안정성을 갖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직업에서의 불안정은 중년기의 심리적 측면과 관련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서정아, 1998; 조용재, 2004; Wilson, Larson, & Lee, 1993). 이와 같이 직업적 요인은 남성의 심리적 측면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으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중년기의 퇴직 스트레스나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만을 파악하거나 이들과 심리적 위기의 관계만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직업관련 요인 외의 다른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중년기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대해 생활주체가 경험하는 객관적 및 주관적 느낌의 복합 상태이며 개인이 자신의 현재 위치와 활동에 대해 가지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하여 자신의 기대, 욕구, 다른 준거집단과의 비교에 의해 평가된다. 이와같이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지표이므로 결국 생활만족도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알아볼 수 있다(김원경, 윤진, 1991).

즉,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태도이고(김명자, 1989),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및 현재까지의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 신기영, 1999, 재인용)을 생활만족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중년기 심리적 적응의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중년기의 생활만족도에 관련하여 중년기의 적응(김연화, 1999; 김현화, 1992; 진미정, 1993), 심리적 복지(김윤민, 2002; 신기영, 1999; 신기영, 옥선화, 1997), 노후준비(이유신, 2005; 임경자, 2002), 직무 스트레스(이명주, 2002) 등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를 심리적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련 변인 고찰에서는 중년 남성의 생활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 심리적 복지, 적응 등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3. 관련 변인 고찰

1) 개인특성 변인

본 연구에서 개인특성 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직업을 살펴보았다. 이들 변인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중년기의 심리적 측면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그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못하다.

첫째,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Palmore와 Kivett(1979)는 46세에서 70세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Diener와 Suh(1998)에 따르면 생활만족도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김영철(1989)은 40대가 스트레스의 인지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우울, 불안 등의 심한 정신증상으로 고생하지만 50대에 이르러 이러한 증상이 낮아진다고 하면서 연령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언급하였다. 김윤민(2003)의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진미정(1993)의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의 생활만족도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남녀를 비교한 김혜신(2003)은 중년 남녀의 연령에 따라 생활만족도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년기의 심리적 변화에 적응력있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므로(Cox, 1980; Lieberman, 1980; 고기숙, 2003, 재인용), 교육수준은 중년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년 남성의 경우, 이명주(2002)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없었으

나 김윤민(2003)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중년 여성의 경우에 신기영(1999)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진미정(1993)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현화(1992)와 김혜신(2003)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셋째, 월소득 수준을 들 수 있다. 가정의 경제는 주로 남성들의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은 남성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남성의 경우에 김윤민(2003)은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명주(2002)의 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김현화(1992)는 가정의 소득 요인이 중년기 남성의 적응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넷째, 직업은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측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년기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한 박미석(1996)의 연구에서 전문직인 경우에 심리적 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노무직 종사자인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났고, 진미정(1993)의 연구에서는 직업 지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김혜신(2003)과 김현화(1992)의 연구에서도 직업 지위가 높을수록 중년 남녀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와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생활만족도는 중년 남성의 심리적 적응을 보여주는 지표로 측정되어 왔으나, 개인특성변인에 따라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2) 가족관련 변인

중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자녀와 중년 자녀와의 유대감을 중요시하는 노부모의 권위 의식 및 의존적인 욕구 사이에서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윤진, 1985), 가족의 재구조화 및 부부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와 기대 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련 변인으로 가족 내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년기 부부관계는 자녀의 성장으로 부모역할이 감소 또는 변화되면서 부부관계의 질도 변화하여 부부관계의 재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다(Peplau, 1975; Sheey, 1995). 부부역할의 질적인 수행 역시 남성의 직장에서 야기된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나(Pleck, 1985), 부부역할이 남성의 심리적인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overman(1989)은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중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서정아, 1998 재인용), 김명자(1998)는 중년기 남성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직업보다 가족생활을 우

선시하며, 직업 역할보다 남편으로의 역할이 남성의 행복감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정아(1998)는 기혼 직장남성의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복지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연화(1999)는 중년기 직장남성의 결혼만족도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인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결혼만족도가 중년 남성의 생활만족도를 비롯한 심리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관계로 부모가 중년기에 있을 경우, 그 자녀는 대부분이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에 있게 된다. 이 두 세대는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속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의 역동은 보다 더 복잡해지고, 그 관계의 질은 양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년 전반기인 40대는 자녀가 청소년기에 달하고 성인기로 성장하면서 독립성을 발달시켜 가는 시기로 부모와의 관계가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학업과 입시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 김명자(1991)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기 부부의 가장 큰 관심사 및 당면 문제는 자녀의 진로결정, 시험, 자녀의 앞날에 대한 염려로 나타났으며, 한미선(1992)의 연구에서는 자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성인 초기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로 부모 역할의 변화 및 상실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로서 만족감, 완수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면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며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자녀의 배우자 및 손자녀와의 역할 관계로 인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모역할이 요구되기도 한다(김명자, 1998).

중년기 남성의 경우에, 조원지와 한경혜(2001)는 기혼 남성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공통으로 아버지 역할 수행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 역할의 비중과 심리적 측면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서정아(1998)는 부모역할 만족도가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중년 남성의 부모역할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자녀의 유대감이나 스트레스(김명자, 1989; 김예순, 1993; 한미선, 1992), 의사소통(김명자, 1989; 이성조, 1998; 장영자, 2003)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중년기 남성의 부모역할과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셋째, 노부모와의 관계 또한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다. Wise와 Murray(1987)는 중년 세대는 완전한 독립을 못 이룬 성인자녀와 의존적인 노부모를 두게 되며, 이 두 세대의 새로운 요구와 역할기대 때문에

불확실한 생활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거나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며 위기감은 고조된다고 하였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부모 부양기간이 장기화되는 오늘날의 중년 세대는 노인 세대의 기대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노부모의 만성적 질병 등의 예기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 시간적·재정적으로 힘든 보살핌 등을 수행하면서 정서적 갈등이 증가된다 (Brody, 1985; 김명자, 1998 재인용).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경신과 이선미(1998)의 연구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감이 생활만족도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김명자와 안선영 그리고 한정화(1996)의 연구에서는 신세대 부부와 중년세대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비교하였는데, 중년기 남편의 부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인 죄책감도 중년기 남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경신과 이선미(1998), 이주연(2002)의 연구에서도 남편이 부인보다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 남성의 부양부담이 심리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고부간의 유대관계나 부양부담에 초점을 두거나 전 연령층의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비교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양부담과 심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3) 직업-가족 갈등

직업-가족 갈등이란 직업과 가족 두 영역이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역할간 갈등을 의미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직업과 가족생활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역할긴장 또는 역할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나 정서는 직업생활과 가족에게 상호 전이된다(김진희, 한경혜, 2002). 즉 직업-가족 갈등은 양방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직업생활이 가족생활을 방해하는 직업→가족 갈등과 가족생활이 직업생활을 방해하는 가족→직업 갈등(Duxbury, Higgins, & Mills, 1992; Frone, Russell, & Cooper, 1992; Gutek, Searle, & Klepa, 1991)으로 구분된다. 이는 직업과 가족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순환적인 과정으로 서로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년 남성은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그리고 부모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가족갈등을 경험한다. 이들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되며, 각 역할에서의 요구

사항들은 역할과다, 역할간섭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Higgins, Duxbury, & Irving, 1992; Kelly & Voydanoff, 1985; Kopelman, Greenhaus, & Connolly, 1983). 이러한 직업과 가족 역할간의 갈등은 긴장, 불만족, 건강 문제 등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스트레스, 직무만족, 생활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창영, 2001; 이동렬, 1995; Frone, et al., 1992; Higgins et al., 1992).

국내의 연구로 기혼 남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황택순(1992)의 연구에서는 직업-가족갈등이 삶의 만족도와 부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이동렬(1995)의 연구에서도 직장과 가정 영역의 상충된 요구 사이에 경험하는 역할간 갈등은 남성이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직장 남녀를 대상으로 한 장보정(2004)의 연구에서는 직업-가족 갈등이 생활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직업-가족 갈등의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김영선(2003)의 연구에서도 일-가족 갈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 일-가족 갈등이 높은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국외의 연구로 Higgins 등(1992)은 일-가족 갈등을 경험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Johnson(1995)은 직업-가족 갈등이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Wiegel 등(1995)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이나 직업관련 특성들이 일-가족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같이 가족과 직업은 각각 별개의 영역이 아니며 가족은 직업생활과 정적·부적인 영향을 상호 교류하는 밀접한 관계로 볼 수 있고, 이는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주요 생활영역인 직업과 가족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연관될 것으로 가정하고 직업-가족 갈등과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 직업관련 변인

중년 남성의 일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생활은 중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직업에서의 경험은 남성의 심리적 측면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직업 스트레스, 직업 안정성, 직장내 대인관계는 직업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관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직업 스트레스(job stress)는 한 개인의 능력, 기술과 직무 요구간의 불일치, 혹은 한 개인이 요구하는 것

과 직무환경이 불일치할 때 발생하게 된다(Fench, Rogers, & Cobb, 1974). Beehr와 Newman(1978)은 직업 스트레스가 직장인의 심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건이며, 그 조건은 직무관련 요소들과 작업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작업자의 심리적·생리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일반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한 김태균(2003)의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긴장 상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화(1999)의 연구에서도 중년기의 생활만족도에 직업만족도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35~55세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명주(2002)의 연구에서도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하면서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꼽았다. 서정아(1998)의 연구에서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서 여러 선행연구(김수연, 2001; 박정아, 2004; 이연수, 2000)에서 직업에서의 스트레스 경험이 남성의 심리적 측면에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직업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숙련된 시기인 동시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중년기에 경험하는 직업 스트레스는 중년기의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직업 안정성(job security)은 종업원들 자신의 직무가 안전하다는 인식에 대한 심리적 상태로(Pearce, 1998), 이는 승진, 고용안정, 임금 증가와 같은 직무의 중요한 조건이 안전하다는 것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직업 불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직업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업을 유지하고자 애 쓴 근로자들은 심각한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측면과 관련하여, Wilson 등(1993)은 직업 불안정성은 정서적인 복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국내의 서정아(1998)의 연구에서도 직업 안정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직업 안정성이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중년 남성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많은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실업이나 불안정 고용과 같은 직업 스트레스와 적응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박정아, 2004; 이명주, 2002; 이연수, 2000; 정은주, 2004). 따라서 은퇴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현 사회에서 직업 안정성과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측면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직장내 동료관계를 들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조직구성원은 조직 내의 여러 사람들과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한광현, 1992),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지지나 지원은 직업생활과 가정역할을 조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Greenhaus 등, 1985). 중년기 남성의 사회적 지지체계 가운데 직장 상사나 동료는 직장에서의 중요한 타인으로서 직장내 사회적 지지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Ray & Miller, 1994).

Couter와 Manke(1994)도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의 지원 및 지지가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들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국내의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명신(1998)의 연구는 직장내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서정아(1998)도 직장내 동료관계의 질이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김성수(2001)의 연구에서도 직장내 동료관계에 따라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함으로써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김현지(2000)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의 직장 동료와의 정서적, 일손적 기능에 따라 심리 상태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명주(2002)의 연구에서도 직장동료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가 중년기 남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여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5) 가족관련 변인과 직업관련 변인 간의 관계

가족내 상호작용이나 관계의 질은 직업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Pleck(1985)은 남성의 부부 역할과 부모역할에서의 질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신건강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정과 직장역할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한경혜와 이정화(1995)도 가족과 직업이라는 두 영역에서의 역할의 상호성 내지는 관련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Kinnunen, Gerris와 Vermulst(1996)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직업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김태현과 김양호(2003)의 연구에서도 중년 남성이 가족역할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수록 직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고,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은숙(1990)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무관련 변수들이 부인의 결혼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남편의 직무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부인의 결혼적응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문정실(1995)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에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전이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가족과 직업생활은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Barling과 Macewen(1992)의 연구에서는 직업 경험과 부부관계 가능성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생활과 가족생활과의 상관이 낮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다른 선행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만 40~59세 사이의 전일제 직업에 종사하며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본조사는 전국 5개 도시(서울, 대전, 대구, 광주, 전주)에서 실시하였고, 자료의 수집 기간은 2006년 8월 14일부터 9월 20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694부의 질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6.8세였으며, 40대는 약 68.6%, 50대는 31.2%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부분 기업의 평균 정년퇴직 연령이 약 55세로 직장에 있는 50대 남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평균 교육수준은 15.0년이었는데, 그 분포를 보면 대졸이 50.6%(352명)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소득은 474.1만원으로 중류 이상의 생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일반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이 각각 28.9%(201명)로 가장 많았고, 전문기술직도 26.8%(186명)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연령이 중년기에 해당하므로 직장내 직위도 중간 정도 이상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함께 월소득도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평균 결혼기간은 약 18.16년이었으며, 10년~20년 미만인 51.2%(356명)로 가장 많았고, 특히 생활연령이 중년기임에도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8.9%(62명)로 나타나 현대 사회의 만혼 경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녀와 관련된 특성으로 첫째 자녀위치는 가족생활주기의 단계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데, 중·고등학생인 경우가 30.6%(213명)로 가장 많았고, 특히 첫 자녀가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가 28.6%로 나타난 것은 결혼시기가 늦어져 자녀를 늦게 낳았거나 결혼 후 자녀출산을 미루는 경향을 반영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명(%)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연령	40~44세	301 (43.3)	자녀수	1명	80 (11.5)
	45~49세	176 (25.3)		2명	448 (64.5)
	50~54세	130 (18.7)		3명 이상	159 (22.9)
	55~59세	87 (12.5)	자녀 유형	아들+딸	354 (50.9)
교육 정도	중졸이하	26 (3.7)		딸만	146 (21.0)
	고 졸	179 (25.8)		아들만	184 (26.5)
	대 졸	352 (50.6)		첫째 자녀 위치	초등이하
	대학원이상	132 (19.0)	중고생		213 (30.6)
월수입	200만원 이하	139 (20.0)	대학생		151 (21.7)
	201~300만원	181 (16.0)	기타		124 (17.8)
	301~400만원	127 (18.3)	결혼 기간	10년 미만	62 (8.9)
	401~500만원	129 (18.6)		10년 이상~20년미만	356 (51.2)
	501만원 이상	105 (15.1)		20년 이상~30년미만	222 (31.9)
직업	전문기술직	186 (26.8)		30년 이상	52 (7.5)
	행정관리직	96 (13.8)		배우자 취업	유
	일반사무직	201 (28.9)	무		358 (51.5)
	판매서비스직	201 (28.9)			
	생산, 단순노무직	9 (1.3)			
종교	유	497 (71.6)			
	무	194 (27.9)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도구

1) 개인특성 변인

개인특성 변인은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직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외 기초적인 정보 탐색을 위해 결혼기간, 자녀수, 자녀유형, 첫째자녀 위치, 배우자 취업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2) 가족관련 변인

가족관련 변인으로는 부부관계 요인으로 결혼만족도를, 부모-자녀관계 요인으로 부모역할 스트레스, 노부모와의 관계 요인으로 부양부담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결혼만족도는 윤경자(1997)가 변안한 Schumm 등(1985)의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KMSS는 응답자가 자신의 결혼생활 만족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그리고 배우자로서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총체적 결혼만족도를 측정(김득성, 1989; 윤경자, 1997; 정현숙, 1997)하는 것으로 모두 3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둘째, 중년기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부모역할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부모역할 스트레스란 부모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말하며, Berry와 Rao(1997)의 PSS(Parental Stress Scale)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셋째, 노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였다. 부양부담은 중년기 남성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수반하게 되는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김명자와 안선영 그리고 한정화(1996)의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부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3) 직업-가족 갈등

직업-가족 갈등은 직업과 가족 두 영역에서의 역할압

력이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역할간 갈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업-가족 갈등은 직업→가족 갈등에 관한 4문항과 가족→직업 갈등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업→가족 갈등은 Small과 Riley(1990)의 WSS(Work Spillover Scale)를 기초로 서혜영과 이숙현(2002)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장일로 인해 가정생활에서 겪게 되는 시간·에너지·심리적 제약 및 일반적인 제약(각 1문항)을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으로 인해 가족내 역할 수행에 지장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직업 갈등은 서혜영과 이숙현(2002)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일로 인해 직업에서 겪게 되는 시간·에너지·심리적 제약 및 일반적인 제약(각 1문항)을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으로 인해 직업에서의 역할 수행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척도를 하나의 '직업-가족 갈등'으로 명명하고, 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가족 갈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가족 갈등의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alpha = .85$ 였다.

4) 직업관련 변인

직업관련 변인은 직업 스트레스와 직업 안정성 그리고 직장내 동료관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직업 스트레스는 직장이라는 특정한 환경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업무의 질적·양적 과부하에 따른 역할 긴장 및 갈등의 정도를 나타내며(이승아, 1998), Parker와 Decotius(1983)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김유리(2001)의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7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 안정성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내에 직업상 실 위협 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박승열, 1995)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말하며, 한경혜(1996)의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직장의 안정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승진에 대한 가능성, 퇴직 중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구성하였다. 총 3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현재 직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 .64$ 이었다.

셋째, 직장내 동료관계는 직장 동료의 지지 정도를 나타내며,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SOS)'를 이용한 조용재(2004)의 척도 중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장내에서 동료의 지지 2문항, 전반적 지지 1 문항의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내 동료관계가 지지적인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 .74$ 이었다.

5)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현재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이명신(1998)이 사용한 Campbell(1981)의 '주관적 삶의 질(Index of Well-Being)' 척도 중 개인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최근의 경험에 대한 감정인 '삶에 대한 느낌'을 재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삶에 대한 느낌'의 응답은 7점 척도로 두 개씩 짝지어진 형용사의 어느 한 곳에 표시하며, 총 8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이어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 .95$ 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2.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개인특성 변인, 가족관련 변

인, 직업-가족갈등, 직업관련 변인에 따라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어떠한 차이 또는 관계가 있는지와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one-way ANOVA,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 변인이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 변인들을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개인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

개인특성 변인에 따른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즉, 교육수준, 월소득, 직업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에 따라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 중졸 이하인 경우와 고졸인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월소득에 따라서 401만원~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는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중년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커진다는 김연화(1999)의 연구결과와 조원지(2001)의 연구에서 40~50대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교육수준과 소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표 2> 개인특성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M(SD)/D

변 인		생활만족도	F 값
연령	40~44세	5.02 (1.15)	1.08
	45~49세	5.15 (1.16)	
	50~54세	4.99 (1.12)	
	55~59세	5.20 (1.01)	
교육 수준	중졸이하	4.92 (1.50) a	4.46**
	고 졸	4.95 (1.15) a	
	대 졸	5.02 (1.08) ab	
	대학원이상	5.38 (1.11) b	
월소득	200만원 이하	4.85 (1.19) a	2.92*
	201~300만원이하	5.00 (1.21) ab	
	301~400만원이하	5.10 (1.05) ab	
	401~500만원이하	5.26 (1.05) b	
	501만원 이상	5.24 (1.08) b	
직업	전문기술직	5.21 (1.27) b	3.41*
	행정관리직	5.13 (1.04) ab	
	일반사무직	4.89 (1.01) a	
	판매서비스직	4.90 (1.24) a	

* p<.05 ** p<.01 *** p<.001

것이나, 이명주(200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기술직이 일반사무직 및 판매서비스직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김현화(1992), 김혜신(200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2. 관련 변인들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분석

중년기 남성의 가족관련 변인, 직업-가족갈등, 직업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가족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가족관련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 및 노부모 부양부담보다 생활만족도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만족도는 생활만족도와 $r = .32(p < .001)$ 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기혼 직장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도 높아진다는 서정아(199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와 $r = -.40(p < .001)$ 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중년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졌다. 노부모 부양부담은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와 $r = -.24(p < .001)$ 의 부적 상관을 보여 부양부담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졌다. 이와같이 가족관련 변인들이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본 연구결과는 가족관계의 유대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위기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고기숙, 2001; 김명자, 1989; 김양희 등, 2001; 김예순, 1993; 황인성, 1998; Samuels, 1997)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직업-가족갈등과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업-가족갈등은 생활만족도와 $r = -.28(p < .001)$ 의 정적 상관을 보여 직업-가족갈등이 많을수록 중년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낮아졌다. 이는 황태순(1992)의 연구에서 40대 이후 직장 남성들의 직업-가족갈등이 직장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직업관련 변인은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는 $r = -.42(p < .001)$ 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다음은 직업 안정성($r = .30$), 직장내 동료관계($r = .2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직업 안정성이 높을수록, 직장내 동료관계가 지지적일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이는 이명신(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김성수(2001)와 김현지(200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직장내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가 중년 남성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없었다는 이명주(200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 변인 가운데 직업 스트레스가 중년 남성의 생활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다른 요인들보다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3.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분석

중년기 남성의 가족관련 변인, 직업-가족갈등 및 직업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가족관련 변인 중 결혼만족도는 직업-가족갈등과 $r = -.26(p < .001)$ 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역할 스트레스 및 노부모 부양부담은 직업-가족갈등과 $r = .38(p < .001)$, $r = .42(p < .001)$ 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노부모 부양부담이 높을수록 직업-가족갈등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부양스트레스가 가족-직업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박경아(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직업-가족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다른 요인들보다 직업관련 변인인 직업 스트레스, 직업 안정성, 직장내 동료관계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을 보여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중년기 남성의 직업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표 3> 관련 변인들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변인	가족관련 변인			직업-가족 갈등	직업관련 변인		
	결혼 만족도	부모역할 스트레스	노부모 부양부담		직업 스트레스	직업 안정성	직장내 동료관계
생활만족도	.32***	-.40***	-.24***	-.28***	-.42***	.30***	.27***

* p<.05 ** p<.01 *** p<.001

<표 4>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가족 관련 변인	1. 결혼만족도						
	2. 부모역할 스트레스	-.40***					
	3. 노부모 부양부담	-.26***	.40***				
	4. 직업-가족 갈등	-.26***	.38***	.42***			
직업 관련 변인	5. 직업 스트레스	-.24***	.38***	.31***	.50***		
	6. 직업 안정성	.21***	-.33***	-.27***	-.37***	-.51***	
	7. 직장내 동료관계	.18***	-.24***	-.12**	-.19***	-.19***	.18***

* p<.05 ** p<.01 *** p<.001

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직업-가족 갈등은 직업관련 요인 중 직업 스트레스와 $r = .50(p < .001)$ 의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직업 안정성, 직장내 동료관계로 나타나 직업 스트레스가 직업-가족갈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태현과 김양호(2003)의 연구에서 가족역할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남성은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가족역할 수행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높은 수준의 방해를 받는다고 보고한 연구결과(Gutek, Searle, & Kelpa, 1991)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중년 남성의 가족내 역할을 비롯한 가족생활이 직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업관련 변인 중에서 직장내 동료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을 보여,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보다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직업 스트레스나 직업 안정성이 다른 변인들과 더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관련 변인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를 탐색하기 위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자기회귀 현상의 부재를 살펴보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높이는 $r = .60$ 이상의 상관계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Durbin-Watson 계수가 1.98로 나타나 이 변수들을 모두 회귀분석에 투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을 적용함에 있어 직업 요인은 앞서 실시된 차이 분석에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던 Duncan test 결과를 바탕으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관련 변인들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의 증가와 그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model I에서는 개인특성 변인만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3%였다. 연령,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model II에서는 개인특성 변인에 가족관련 변인을 첨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18%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이 21%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족관련 변인이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개인특성 변인인 연령, 교육수준과 첨가된 가족관련 요인중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 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부모역할 스트레스($\beta = -.28, p < .001$)였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중년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다음으로 model III에서는 직업-가족갈등을 첨가하였다. 그 결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결과의 분석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설명력의 미세한 차이가 표시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첨가된 변인 중 직업-가족갈등($\beta = -.10,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연령, 교육수준과 결혼만족도,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들 유의한 요인 가운데 부모역할 스트레스($\beta = -.26, p < .001$)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업-가족갈등이 낮을수록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model IV에서는 직업관련 변인을 첨가하여 모든 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model III에 비하여

<표 5>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변인		생활만족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	β	b	β	b	β	b	β
개인 특성 변인	연령	.02	.09*	.02	.11**	.02	.09*	.02	.07
	교육수준	.06	.13**	.04	.09*	.04	.09*	.02	.04
	직업 ^a	-.18	-.07	-.05	-.02	-.06	-.02	-.10	-.04
가족 관련 변인	결혼만족도			.25	.18***	.24	.17***	.20	.14***
	부모역할 스트레스			-.58	-.28***	-.53	-.26***	-.36	-.18***
	노부모와의 관계			-.10	-.07	-.06	-.04	-.04	-.03
직업-가족 갈등						-.18	-.10*	.08	.04
직업 관련 변인	직업 스트레스							-.42	-.28***
	직업 안정성							.04	.03
	직장내 동료관계							.29	.17***
상수		3.41		4.08		4.46		4.17	
F-value		7.26***		26.84***		23.91***		26.59***	
R ²		.03		.21		.21		.30	
Adjusted R ²		.03		.20		.21		.29	
R2-Change				.18		.00		.09	
Durbin-Watson								1.98	

* p<.05 ** p<.01 *** p<.001

a : 전문기술직·행정관리직 = 0, 일반사무직·판매서비스직 = 1

설명력이 9% 증가하여 총 변인의 설명력이 30%로 증가하였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 스트레스 및 직업 스트레스와 직장내 동료관계였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업 스트레스($\beta = -.28$, $p < .001$)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업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장내 동료관계가 지지적일수록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이상에서, 개인특성 변인, 가족관련 변인, 직업-가족갈등, 직업관련 변인은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관련 변인들을 첨가함으로써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투입된 변인들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그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 등

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개인특성 변인(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직업)과 가족관련 변인(결혼만족도, 부모역할 스트레스, 노부모 부양부담), 직업-가족갈등 및 직업관련 변인(직업 스트레스, 직업 안정성, 직장내 동료관계)에 따라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의 차이 또는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남성의 개인특성 변인인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 증졸이하인 경우와 고졸인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월소득은 40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직업이 전문기술직인 경우에 일반사무직 및 판매서비스직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자원의 결핍이 중년기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ox, 1980; Gielo, 1982)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년기 남성의 가족관련 변인, 직업-가족갈등, 직업관련 변인은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가족관련 변인인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스트레

스가 낮을수록, 노부모 부양부담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으며, 직업-가족 갈등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직업관련 변인인 직업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직업 안정성이 높을수록, 직장내 동료관계가 지지적일수록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특히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의 입시현실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모역할의 부담은 자녀가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며 중·고등학교 시기에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한국의 사회적 상황이 중년기 남성의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중년기에는 부부역할의 변화 및 전환에 따른 적절한 적응과 대처가 필요하며, 신체적·심리적·경제적으로 의존성이 증가하는 노부모로 인한 역할전환도 필요한 시기이지만, 이와 더불어 성장하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역할에도 반드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중년기 남성의 가족관련 변인과 직업-가족갈등, 직업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직업관련 변인과 상대적으로 상관이 높았으며, 직업-가족갈등과 직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 안정성과 동료관계의 질을 포함한 직업 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만족도와 상관이 있다는 서정아(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직업-가족 갈등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다는 문경실(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에서의 역할 수행이 가족에게 전이되는 것 못지않게 가족에서의 역할 수행도 역시 직업에 상호 전이되며, 가족과 직업생활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관련 변인들을 첨가함으로써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모든 변인들을 투입하였을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만족도, 부모역할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 직장내 동료관계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업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는 개인특성 변인, 가족관련 변인, 직업-가족 갈등, 직업관련 변인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중년 남성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

해서는 이들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가족생활교육이나 가족상담 등을 더욱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복지기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자녀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중년기 적응을 위한 교육, 중년기에 직장내 가정생활의 균형에 초점을 둔 교육 등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관련 상담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자녀와의 세대차이 좁히기, 부모역할 훈련, 부모-자녀 대화법)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노부모 부양가족을 위한 상담이나 자조집단 모임, 노부모 부양관련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족상담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치료와 함께 가족문제의 사전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직업관련 요인들이 중년 남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를 볼 때, 직장내 연계하여 직장내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영역은 각각 별개가 아닌 상호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정책적 차원에서 가족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상의 지원이 적극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월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에 30여 개소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확충과 함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친화형 공동체 마을'이나 '가족친화 경영' 등 가족, 직장, 사회가 연계하여 가족이 담당해야 하는 자녀양육,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분담함으로써 가족 안에서 발생가능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며, 직장내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함으로써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직장생활에도 긍정적인 전이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제언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의 직업군을 볼 때, 생산직과 단순노무직의 표집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1.3%로 지나치게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표집대상이 판매서비스직 이상의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월소득이나 교육수준 등 다른 요인들과도 연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종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종에서의 포괄적인 표집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적응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이에 질적 연구가 추가된다면 좀더 심도깊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만을 선정하여 심리적 측면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이외에도 중년 남성의 심리적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행복감 및 우울감(김윤민, 2003; 박정숙, 1990; 박수정, 1992; 진미정, 1993; 한미선, 1992), 복지감(서정아, 1998), 자존감(김윤민, 2003; 신기영, 1999; 진미정, 1993), 긍정적·부정적 정서(김현지, 2000), 주관적 안녕감(김연화, 1999) 등 다양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좀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측면에 대해 측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중년기 남성,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 직업-가족갈등, 생활만족도

참 고 문 헌

- 고기숙 (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신, 이선미 (1998) 중년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과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93-106.
- 김남순 (1983) 중년기의 특성 및 발달과업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사회계편), 22(1), 151-160.
- 김명자 (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_____ (1998) 중년기 발달. 서울 : 교문사.
- 김명자, 안선영, 한정화 (1996)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분석. 한국가정과학회지, 14(2), 97-110.
- 김성수 (2001)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2001)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김진희, 박정윤 (2001) 중년기 남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원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 김애순 (199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연화 (1999) 중년기 직장 남성의 주관적 안녕감과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선 (2003) 가족기업 종사자의 일-가족갈등 및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영철(1989) 일반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정신증상 및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28(2), 284-289.
- 김유리 (2001) 직무스트레스의 성차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윤민 (2003) 중년기 남성의 일-가족역할 수행 부담 및 심리적 복지.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경, 윤진 (1991) 성인 노인기의 주관적 연령지각에 따른 심리적 적응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57-168.
- 김계중 (1998). Androgen, Lipid and Cardiovascular System, 대한남성과학회지, 16(1), 21-25.
- _____ (2004) 남성갱년기와 호르몬 보충요법. 대한남성과학회지, 22(2), 45-51.
- 김진희, 한경혜 (2002) 남성과 여성의 일-가족 전이와 관련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0(11), 55-69.
- 김태균 (2003).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 분석.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 김양호 (2003) 중년남성의 남성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 김현지 (2000)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화 (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의 적응에 관한 연구 : 성역할 정체감과 내외통제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혜신 (2003)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매일경제 (2006) 창간 40주년 특별 기획 '위기의 40대'. 3월 26일자 기사.
- 문경실 (1995) 남편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전업주부 부부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 (1991)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아 (2005) 노인부양스트레스가 기혼근로자의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가정-직장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계두 (2001) 고용환경, 조직특성, 직무특성에 대한 인식과 직무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9-33.
- 박수정 (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

- 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아 (2004) 중앙 행정부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준희 (2004) 기혼남녀의 성격특성, 가족관계스트레스, 여가활동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아 (1998) 가족 및 직업 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혜영, 이숙현 (2002) 아버지의 직업 만족도 및 가족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4(3), 3-30.
- 신기영 (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기영, 옥선화 (1997).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 여성가족부 (2006). 가족친화 기업모델 및 사례연구. 연구보고 2006-08.
- 유주연 (1995) 가족관계 스트레스 및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중년기 남성의 위기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경자(1997) 성역할 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4), 221-235.
- 윤진 (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윤창영 (2002) 기혼 직장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 : 직장-가정 갈등 모형과 영역별 삶의 질 모형의 통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열 (1995) 직장-가정 갈등이 구성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신 (1998)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 영향 요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주 (2002) 중년남성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삶의 만족도.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조 (1998) 중년기 위기와 관련된 변인 분석.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수 (2000)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련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 (2002)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혁구 (1999) 중년의 위기와 개인적 반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3, 149-164.
- 임경자 (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보정 (2004) 직장-가정 갈등과 직무만족 및 결혼만족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재정 (1988) 중년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0). 성인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현숙 (1997).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변인.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 70, 47-61.
- 조용재 (2004)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2004)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의 관계에서 정서와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원지 (2001) 아버지 역할수행, 직업 역할수행 및 직업역할에 의한 아버지의 역할 방해정도가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원지, 한경혜 (2001). 직업 역할 및 아버지 역할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연령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20.
- 조유리 (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숙 (1990). 남편의 직무관련변수와 부인의 결혼적응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미정 (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경 (1993)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6).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_____ .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경혜 (1996)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역할; 전이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231-244.
- 한광현 (1992)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미선 (1992) 중년기 부인의 자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성 (1998)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택순 (1992) 직장-가족갈등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llard, S. M., & Morris, M. L.(2003). The Family Life Education Needs of Midlife and Older Adults. *Family Relations*, Apr. 52(2).
- Beehr, T. A., & Newman, K. E.(1978). Job stress, employee health,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A facet analysis, model and literature review. *Personnel Psychology*, 31, 665-699.
- Cox, C. B.(1980). Illness behavior in mid-lif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ion. The University

- of Maryland.
- Diener, e., & Suh, e.(1998). Age and subjective well-being : An international analysis. *Annual Review for Gerontology and Geriatrics*, 17, 304-324.
- Duxbury, L. E. & Higgins, C. A.(1991). Gender Differences in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1), 60-74.
- Farrell, M.P., & Rosenberg, S. D.(1981). Men of midlife. Boston: Simon and Schuster.
- Fench, J. R. P., Rogers, W., & Cobb, S.(1974). *Adjuster as a Person-Environment Fit, Coping and Adaptation*, ed., Corlho, G. V., Hnaburg, D. A., and Adam, J. F., New York : Basic Books.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 of Applied Psychology* 77(10), 65-78.
- Gould, R. L.(1978). *Transformation: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 Grunebaum, H.(1979). Middle Age and Marriage : Affiliative Men and Assertive Women, *The Americal Journal of Family Therapy* 7(3), 46-50.
- Guttek, B., Searle, S., & Kelpa, L.(1991). Rational versus gender role explan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560-568.
- Havighurst, R. L.(1972). *Developmental task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ackay.
- Higgins, C. A., Duxbury, L. E., & Irving, R. H.(1992). Work-family conflict in the dual-career famil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sess* 51, 51-75.
- Johnson, A. A.(1995). The business case for work-family programs, *Journal of Accountancy*, 180(2), 53-55.
- Jung, C. G.(1933).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Palmore, E. & Kivett, V.(1979). Change in life satisfaction : A longitudinal study of persons aged 46-70. *Journal of Gerontology*, 32(3), 311-316.
- Peplau, H. E.(1975). Midlife Crisis. *Americal Journal of Nursing*, 75(10), 1761-1765.
- Pleck, J. H. (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CA: Sage.
- Sheehy, G.(1995). *New passage: Mapping your life across time*. New York: Random House.
- Wilson, S. M., Larson, J. H., & Lee, K. L.(1993). Life Satisfsaction Among Job Insecure Workers and Their Spouses. *Family Relations* 42, 74-80.

(2007. 03. 17 접수; 2007. 05. 30 채택)